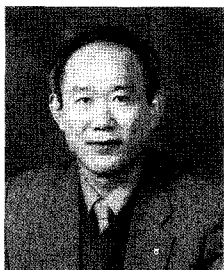


8월의 양봉관리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 상 균

장마도 견히고 일년 중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달 중에 피서를 가게 되는데 강원도 산골짜기에 벌을 가지고 가 있는 양봉인은 피서를 온 것과 다름없지 않나 생각된다.

지난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는데 올 여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7월 하순경의 날씨나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올 여름 날씨도 무더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무더위 방지

사람이고 벌이고 짐승이고 자기가 활동하기 좋아하는 온도가 있는데 벌들도 33도 이상이 되면 활동을 자제하게 되고 무더위와 싸움을 하게 된다.

출입구 앞에서 벌통 내부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계속 선풍 작업을 함은 물론 아주 더울 때는 물을 물어다가 봉충 뚜껑 위의 골이 진 곳에 바르고 열심히 선풍을 하여서 습도조절은 물론 벌통 내부를 시원하게 하는데 사람이

목욕한 후에 선풍기 바람을 쐬면 대단히 시원하게 느끼는 것을 벌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벌들이 추울 때는 촘촘히 착봉이 되어야 벌 자체의 열로 인하여 벌통 내부온도를 올려 육아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지만 더울 때는 오히려 벌이 촘촘히 착봉이 되면 더운 것을 알다 보니 벌들 스스로 소문 밖으로 나가 바닥 밑으로 붙는다든가 떠돌이까지 전면에 완전히 벌이 달라붙어 벌통 내부를 시원하게 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유충에게 젖 주는 것이 부족하게 되고 여왕벌 또한 스트레스를 받아 산란력이 떨어지게 된다.

무더위가 심한 한여름철에 피약벌에 벌통을 놓아기른 벌과 그늘이나 양봉사에 놓아기른 벌과는 육아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양봉인들이 강원도로 여름철에 이동해가는 것도 싸리 밀원 보러 간 다든가 옥수수나 광대싸리 화분이 충분한 곳을 찾아가는 이유도 있지만 경남북 내륙지역의 무더운 곳에서 여름을 나게 되면 산란력이

떨어져 벌이 잘 안되다 보니 강원도로 이동해 가는 목적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대구 지역도 화분원만 있고 그늘이나 양봉사에서 관리하면 강원도 간 것 못지않게 벌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밤꽃 필 때부터 무더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서늘한 그늘이 있는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벌의 생리에는 맞다고 생각된다.

과거에는 무조건 양지에서 기르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만 알았는데 필자가 매년 다니던 강원도를 가지 않고 참깨 밭에 가서 그늘에 놓아 보았더니 피약벌에 놓은 것보다 착봉도 좋고 산란과 육아가 좋은 것을 발견하여 그 후부터 양봉업계에 열심히 알려주어 지금은 대다수 양봉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늘에서 기르는 양봉인의 비율이 월등히 낮은 편이다.

과거 선배 양봉인들의 얘기로는 참깨가 많은 전라도에 벌을 가지고 가서 참깨꽃만 보면 벌이 깎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깨에서 꿀과 화분은 들어 오다보니 여왕벌이 산력은 왕성해지고 날씨는 무더웁다보니 착봉이 약해서 벌에 비하여 육아 면적이 넓다보니 젖 주는 것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여 날개말림이나 기는 벌이 생기는 것이다.

필자가 양봉을 삼촌 밑에서 8년 정도 배우고 처음 벌을 시작하던 79년에 벌을 8통 가지고 40통을 만들어 당진 고향에서 처음 내 벌을 시작하던 해인데 7월에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지속되었다. 벌을 다섯 배로 늘리다보니 착봉은 안 좋은 상태에서 무더웁다보니 그나마 벌들이 소문 밖으로 나가 붙든가 뒤쪽 공간으로 퍼지고 신왕이다보니 산란력은 왕성해서 벌에 비하여 육아 면적이 많아서 엉성하게 달라붙는 것이 확연하게 보였다.

이때 내김해보면 유충이 젖이 부족하여 딱딱

하게 보였고 결국 그 봉층이 자라서 터져 나오니까 영양실조로 인한 날개말림이 생긴 벌이 많이 태어나서 밭도랑에 수도 없이 많이 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다수 양봉인들이 날개말림이 생기면 이는 진드기가 많아서 생기는 것으로만 아는데 이는 진드기로 인하여 벌의 체액을 빨아 먹어서 발육부진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이보다는 진드기로 인하여 불구날개 바이러스 병균이 감염되어 생기는 것이다.

필자도 이러한 상황을 겪기 전까지는 날개말림이 생기면 무조건 진드기 피해로만 알았는데 무더위와 화분부족으로 인하여 벌이 젖을 못 먹고 영양실조가 되어도 오히려 진드기 피해보다는 월등히 심할 정도로 날개말림이 생기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진드기 피해인줄 알고 약을 치니까 진드기도 안 떨어져서 다른 병인가하여 그 후 항생제도 분무해봐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더니 기온이 갑자기 35도씩 올라갈 때 더워서 젖을 잘 안 준 것이 느껴져 이때 봉층이 된 벌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벌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가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참깨가 있는 인근 4km 정도 떨어진 커다란 참나무 밑에 벌을 옮겨 놓았다.

시원하니까 착봉도 안정이 되고 화분도 잘 들어오는데 벌은 계속 기어서 벌을 계속 축소를 해서 벌수에 맞게 매수를 넣어 주었다. 신기하게도 그늘로 옮겨 놓아서 기른 유충이 태어날 때부터 거저말처럼 날개말림이 딱 중지되는 것을 느꼈다.

이때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여름 벌은 그늘에서 기르는 것이 월등히 좋다는 큰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양지에 놓고 기르지를 않고 있으며 그 후 양봉업계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면서 여름 벌을 그늘에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위나 자갈

밭 또는 모래땅에 벌을 놓는다든가 흙이 묻지 말라고 벌통 근처 전체를 보온덮개를 깐다든가 비닐을 깔고 벌을 놓으면 더 더웁기 때문에 이러한 봉장에 가보면 소문에 벌이 많이 달라 붙어 있어서 벌이 좋은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형편없게 됨을 볼 수가 있다.

단상보다 계상은 육아하는 곳이 아래에 있다 보니 여름철에는 단상보다 산란력이 왕성함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계상 벌통이 단열 효과를 발휘하여 하단은 시원하기 때문이므로 단상군은 가급적 그늘진 곳을 찾아서 벌을 관리하는 것이 어떠한 관리기술 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부득이 그늘에 놓을 곳이 없다면 스티로폼 50 ~ 60mm 라도 단단한 것을 사서 벌통 위에 덮어주고 페타이어로 날아가지 않게 눌러주면 스티로폼 가격 들어간 값어치가 당년에 빠지게 된다. 쓰고 난 것은 다시 그늘 속에 잘 쌓아 놓았다가 이듬해 쓰면 되겠다. 처음 스티로폼을 벌통 위에 덮어주면 벌이 방향감각을 잃고 스티로폼 위에 받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황토 흙을 물에 타서 발라주어서 색깔을 내는 것이 좋다.

필자가 양봉사를 가지고 벌 관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하고 땅 사서 부동산으로 돈도 벌고 밀원도 심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양봉업계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도 양봉업계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약제나 기자재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일부 많은 도움도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고정으로 취미 양봉하시는 분들의 사육군수만 늘어나게 되고 이동하는 전업 양봉인은 밀원 부족으로 이동할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 꿀 판매는 점점 어려워져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오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지원사업 시에는 우선 밀원수 지원을 받아 심는다면 내가 보다가 벌을 하지 않더라

도 후손한테 양봉터전을 물려주는 일이 될 것이고 양봉사 지원을 받아 지으면 일석 몇 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지원사업을 하고 그래도 돈이 남을 때나 다른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양봉업계의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제일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다같이 양봉사 갖기 운동을 펼쳐서 고정 양봉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무더울 때는 소문도 너무 좁게 관리하면 더우므로 벌수에 맞게 벌이 전면에 묻치지 않을 정도로 넓혀 주는 것이 좋다. 착봉도 너무 강하면 분봉열이 잘 나게 되므로 공소비에 한 장 정도의 예비군 벌만 남겨 놓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2. 식량공급

이달은 싸리나 붉나무 또는 음나무, 회화나무, 쉬나무, 다름나무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화기이다보니 식량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하겠다.

또한 수분도 많이 필요로 하다보니 봄, 가을철보다는 사양액을 만들 때 물의 양을 조금 더 넣어서 필요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설탕 15kg 한 포에 물을 8되 내지 한말까지도 괜찮은데 너무 묽으면 그때그때 녹여서 주지 않게 되면 설탕물이 썩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겠다.

자동 사양기로 주다보면 호스에 남은 것이 쉬게 되므로 매일 자주 줌으로써 쉬는 것도 방지가 되고 또한 벌들도 매일 사양 공급이 됨으로써 밖에서 꿀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 산란력이 높아지고 젖도 잘 주어서 육아 성적이 좋아지게 된다.

밤꿀이 들어 온 것이 소비에 남아 있을 때는 냄새 때문에 내검시에 도봉 발생이 잘 되게 되므로 신속하게 관리함은 물론 식량도 충분히 주어서 벌들 스스로 불안감이 없도록 관리하

는 것이 도봉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다.

자동 사양기가 편리한 점은 좋은데 사양기로 사양액이 들어오는 부위에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호스 속에서 생긴 이끼나 그 밖의 이물질이 막혀서 사양액이 안 나와서 절량되는 별통이 간간히 생기게 되며 때로는 우끼가 작동이 안 되어 사양액이 한 드럼씩도 새 나가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사양액을 주고 난 후에는 한동안 점검해 주어야 하겠고, 여름철에 한두 번은 우끼가 있는 부분은 청소를 사전에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분배기 안에 찌꺼기를 걸러주는 체가 있는데 이곳이 공기에 노출되게 되면 곰팡이가 달라붙어 막혀서 내려가지 않게 되므로 때가 끼면 가끔씩 청소를 해주어야 하겠으며 곰팡이가 끼지 않게 관리하려면 분배기 있는 부위가 설탕물이 다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나가는 호스 부위가 약간 높게 해 놓으면 설탕물에 체가 항시 잠겨 있어 곰팡이 발생을 줄일 수가 있게 된다. 광식 사양기로 사양을 줄 때는 사양기 안에 있던 별이 빠져 죽는 별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그 안에 있던 별이 사양액을 부어 주면 바로 올라오면 죽지 않는데 사양액 속에서 사양액을 빨아 먹다가 산소부족으로 기절하여 죽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통 뚜껑을 여러 통 열고 개포를 열고 혼연기로 사양기 안에다가 혼연을 두세 번 하게 되면 별이 대부분 도망가게 되므로 이때 사양액을 부어 주면 별이 빠져 죽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몇 통 되지 않을 때는 사양액을 조금씩 서서히 부어 주면 사양기 안에 있던 별이 기어 올라와 죽지 않게 된다.

계상별은 이달 말경쯤에 계상에 월동식량을 어느 정도 채워지도록 주게 되면 육아 면적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화가 잘 되어 이러한 식량을 먹고 월동을 나는 별이 수명이 길어져서 내년 봄에 육아하는데 오히려 득이 되게 되므로 9월에 육아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제외하고는 이때 식량공급을 미리 해주

는 것이 좋다.

3. 말벌 피해방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로 장수말벌은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숲이 우거지고 농약 사용이 늘어나면서 곤충 숫자가 줄어들다보니 말벌들의 먹이사슬이 나빠져 꿀벌에게 공격하는 시기가 과거보다 점점 빨라지지 않나 생각된다.

과거에는 8월 중하순경이 되어야 꿀벌을 공격했는데 지금은 8월 초에도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몇 년 전에는 7월 하순경에도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봄에 말벌을 잡으면 제일 효과가 좋은데 이는 여왕벌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스위스 양봉인이 조합을 찾아왔는데 말벌 구제에 대하여 물어 보았더니 잼에다가 농약을 적당량 타서 봄에 봉장 주위에 몇 군데 설치하면 꿀벌은 대들지 않고 말벌만 와서 먹고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 봄에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란다.

요즈음 양봉 협회지에 말벌 유인제 만드는 연구를 한 분의 소개가 있었는데 이러한 유인제를 만들어 말벌을 잡는 것을 시험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양봉인들이 쉽게 잡는 것만 생각하게 되므로 말벌 킬러(끈끈이)를 구입하여 사양액을 별통 전면 땅바닥에 한 사발 정도 습기가 있는 땅에 부어 놓으면 말벌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게 되는데 쉰 냄새가 많이 날수록 말벌의 유인제 역할이 잘 되게 된다.

이러한 별통 전면 위에 말벌킬러를 퍼서 날아가지 않게 놓고 말벌을 한두 마리만 잡아 붙여 놓으면 신기할 정도로 말벌이 달라붙어 죽게 된다. 너무 많이 잡혀서 달라붙어 있을 경우 불을 공간이 없게 되므로 갈아 주어야 하겠다.

본드가 1주일 이상 햇벌을 오래 받을 경우 단단해지게 되어 점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손으로 만져보아 점도가 낮아지면 교체해 주든가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한번 다시 원상태로 접었다가 펴주면 약간 점도가 높아지게 된다.

사양액이 넘친 벌통 위나 사양액이 흘린 곳에는 무조건 설치 해주면 되겠다. 특히 교미상을 잘 공격하게 되고 제일 갓 쪽 벌통이나 전면에 풀이 없어서 공격하기 좋은 봉군을 공격하게 되고 공격했던 봉군을 다시 공격하는 확률이 높으므로 공격했던 곳은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말벌은 양지에 벌을 놓은 것보다는 음지에 공격을 더 빨리 받게 된다.

4. 월동군 만들기

이달 하순부터 월동 벌을 만드는 계절이 되는데 그동안 분봉군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월동 군세가 안 될 경우 이달 25일 또는 늦어도 말일까지는 합군을 해주든지 해서 월동 자격군을 만들어야 하겠다.

계상 월동을 시키고져 할 때도 군세가 약할 경우 몇 통을 줄여서라도 완전한 자격군을 만들어야 하겠다. 구왕이 있어서 미쳐 신왕 교체를 못했을 때도 25일경까지는 신왕유입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이때부터 기온이 육아하기 좋은 온도로 떨어짐은 물론 월동 들어갈 벌을 만들기 위해서 산란력이 왕성해지게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서 9월 달에 왕 유입을 하다가 만약 실패를 했을 때는 아무리 강군이라도 월동 벌을 만드는 시기에 육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약군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벌 기르는 기술은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양봉 사육 기술이 세계 어느 나라에 내 놓아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다보니 매년 사육 군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5배 정도의 사육 군수가 늘어났는데 93년도에 약 30만 군이던 것이 2003년에는 154만 군으로 늘어났는데 다른 가축을 보더라도 꿀벌처럼 이렇게 늘어난 가축이 없게 된다. 이는 과거보다 그만큼 벌을 분봉시키는 기술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비율로 계속 벌만 늘여서는 우리 양봉인들의 소득을 지켜 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너무 벌통 늘이는 것에 연연하기 보다는 보다 더 안전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영을 하는 것이 소득 보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강군 월동이 들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군세 조절을 해야 하겠다.

합군시에는 구왕을 죽이고 하루 이틀 있다가 보조해 줄 봉군에 골고루 적당히 나누어 합군해 주면 되겠는데 초보자일수록 합군하는 것을 겁을 먹게 되는데 무왕군을 미리 개포를 열어 놓고 혼연기로 연기를 좀 많이 해주면 벌들은 불안하고 매워서 식량이 있는 곳에 가서 꿀을 최대한 많이 먹게 되게 된다.

벌들은 유봉이나 식량을 많이 뱃속에 먹고 있는 벌한테는 공격을 잘 하지 않게 되므로 혼연만 약간 하고 넣어주면 공격 없이 쉽게 합군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교미상에 있는 신왕을 유입할 때도 도봉끼만 없다면 미리 여왕벌이 붙어 있는 소비를 꺼내어 벌통 옆에 세워 놓으면 자기 벌의 특유한 냄새도 날아가게 되고 일벌 또한 불안하여 식량을 최대한 많이 먹게 되므로 10분 정도 있다가 왕 유입을 해 주면 공격율을 줄일 수가 있게 된다.

도봉끼가 없어야 합군이나 신왕 유입시 공격을 잘하지 않게 되므로 평소 동봉끼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왕 유입시 한번 여왕벌을 죽인 봉군은 다시 죽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봉군은 사양기 뒤에다가 소비체 넣어주었다가 이튿날 바로 내검을 해보던지 합봉망을 이용하여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는 것이 좋다.

5. 화분 공급

어느 지역에서나 그 지역의 벼가 패어서 화분이 들어오기 전애가 화분이 제일 부족한 시기 기 되겠다.

대개 장마철 후반기부터 8월 초까지가 이에 해당되게 된다. 이때 화분 고갈이 되었던 봉군과 대용화분이라도 공급해서 부족한 화분을 메꾸어 준 것과는 별 늘어나는 비율에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봄에 무화기 때만 화분 줄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도 부족한 화분을 주는 것이 좋다.

순수한 화분만 주어도 되지만 이 시기에는 외부에서 약간씩은 자연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 화분을 30% 정도만 넣고서 대부분이나 효모, 메주가루 등을 넣고서 대용화분을 만들어 사용해도 무방하게 된다.

계상과 단상과의 차이점 중에 계상은 소비 공간이 많다보니 화분 저장량이 많고 단상은 저장 공간이 적어서 화분 고갈이 쉽게 오게 된다.

별의 균세가 좋으므로 한번에 1 ~ 2kg 정도 씩 많은 양을 주는 것이 일손을 줄일 수가 있다.

6. 분봉열 방지

이달에 무슨 분봉열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달에도 균세가 좋으면 별들이 더웁다 보니 이달 하순경에 분봉열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나 스티로폴통에 관리를 하는 봉군은 8월 달에 너무 강군이 되면 분봉열이 잘 일어나므로 가뜩이나 무더운데다 나무통보다 무더웁다 보니 균세 조절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8월 1일 기준으로 3.5 ~ 4매, 나무 벌통은 5 ~ 6매 정도만 되어야지 그 이상이 되면 이달 하순경 또는 9월 초순경에 분봉열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강군은 사전에 미리 봉충소비를 한 장씩 빼주어 균세 조절이 필요하게 된다. 스티로폴통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러한 균세 조절을 잘 하지 못한 아는 양봉인이 몇 십 통의 벌이 8월 말부터 9월 초순에 분봉 나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단상군도 너무 강군이면 분봉열이 일어나므로 8월 하순에 8매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7. 싸리꿀의 채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 밀원은 싸리였다.

떨감이 없다보니 산에는 민등산이 되고 키가 작은 관목인 싸리나무는 이때 온 산에 없는 곳이 없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시나무는 있는 곳만 있다보니 충분치가 못했고 60 ~ 70년대 정부에서 사방조림으로 아까시아나무를 많이 심다보니 그 나무들이 자라면서 주밀원의 형태도 바뀌게 된 것이다.

지금은 숲이 우거져 싸리 밀원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줄어들었는데 고성 지역의 산불이 난 지역과 수종 갱신을 하기 위하여 전부 벌채 한 곳에서는 싸리나무가 다시 무성하게 자람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지역은 많은 것이 아니다보니 전국의 양봉인들이 다 볼 수는 없는 일이며 강원도 인근의 양봉인들이 우선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싸리는 참싸리나무가 꿀이 잘 나지 물싸리 종류는 꿀이 잘 나지 않게 되며 밤낮의 기온차가 높게 나타날 때 꿀 분비가 양호하게 된다.

해발 300 ~ 700m 사이에서가 꿀이 잘 나지 않나 생각된다.

꿀이 잘 날때는 아까시아꽃의 꿀샘처럼 생긴 꿀방에 꿀이 딱 차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멀리서 보더라도 꽃이 윤기가 나고 색깔이 불그스름하게 보이게 된다.

꿀이 잘 날때는 단상군 한통에서 한 말가지도 채밀하였는데 아마 지금 북한에서는 산이 험벗어 있어 싸리 밀원도 많고 싸리꿀도 잘 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꿀맛은 약간 신맛을 띄며 약간 노란색을 띄는데 겨울철에는 꿀이 굳어서 흰색을 띄다보니 백청이라는 말이 유래되게 되었다.

8. 물난리 피해

올해 여름철 장마가 일찍 끝나고 비도 많이 오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장마때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은 해가 필자의 경험으로는 늦장마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많은 비가 와서 꿀벌 피해 및 농작물피해를 주게 된다.

올해도 장마 때 강수량이 적은 관계로 늦장마가 올 확률이 높으므로 산사태나 하천 또는 강 근처에 놓은 벌통은 주의하여야 하겠다. 특히 산사태는 산의 골짜기에 비가 많이 올 경우 흙이 그 물을 감당하지 못하여 서서히 표토가 붕그러지면서 생기게 되는데 산 밑에 벌통을 놓을 때는 골짜기 아래쪽에는 벌을 놓지 않는 것이 산사태로부터 피해를 막는 비결이 되게 된다.

강이나 하천도 물이 범람한다든지 강둑이 무너지게 되는데 물은 직선으로 내려 갈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 둑이 구부러져 물이 계속 강둑을 무너뜨리는 지역에는 벌통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다리 근처에 벌을 놓게 되면 산사태가 나서 커다란 나무가 떠내려가다 교각에 걸려서 막힐 경우 물이 넘쳐서 피해를 많이 입게 된다.

9. 식량 조절

8월 하순경부터 산란이 왕성해지고 이때부터 9월 달에 기른 벌이 월동벌이 되게 되는데 이때 너무 식량이 많을 경우 산란할 공간이 적어져 월동벌을 좋게 만들지를 못하게 된다.

또한 이달 하순경에 단상으로 식량이 너무 많을 경우 늦더위가 하게 되면 오히려 더위를 느끼게 되어 산란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식량이 적은 벌통과 소비교체를 해주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많은 소비만 일부 정리 채밀을 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자동 사양기로 줄 때는 지형적으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벌통과 사양기 종류가 달라서 가져가는 부위

가 넓은 것이 식량이 많게 되므로 내검을 해보든가 위에서 소비 상단 쪽의 밀방을 달아 낸 것을 감안하여 참고하여 식량을 한 두 번씩 들어가지 못하도록 빨래집게로 작은 호스를 꺾어서 물어주면 되겠다.

10. 거미의 제거

요즈음 매년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벌을 기르다보니 먹이사슬이 좋아져 거미가 봉장 주위에 많아지게 됨을 볼 수가 있다.

9월이 되면 말벌 피해보다도 거미피해가 많게 되므로 파리채나 얇은 판자 또는 1.5ℓ 펫병을 마개를 열고 발로 밟아서 납작하게 한 다음 뚜껑을 꼭 막고서 이를 가지고 때려잡아도 편리하게 잡을 수가 있다.

환삼덩굴 화분이 들어 올 때는 이러한 근처에 많이 있다가 이 꽃이 져서 화분이 안 들어오면 거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게 된다.

싸리나 연백국화나 물봉숭아, 들깨꽃 등이 많은 지역에서도 이 꽃이 개화할 때도 근처에 거미가 많이 서식하게 된다.

11. 불량벌꿀이 양봉업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양봉업계는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량벌꿀이 판을 치는 나라이다. 세계 12위의 교역국가로써 국민소득이 10,000\$을 넘고 있고 국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대단히 높은 편이다.

소비자들은 대다수 벌꿀하면 못 믿는 식품으로 알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지 않고는 우리 양봉업계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올해 잡화꿀이 유례없이 많이 생산되어 조합에 입고된 꿀이 조합 역사 이래 최고 많이 들어와 감로꿀은 팔수가 없어 가져오지 말라고 하여 조합원이나 비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량 또한 많은 량이 되리라 생각된다.

조합에서 농축산물을 팔아 줄 때도 수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조합은 그동안 수년간 전량 매취를 해왔는데 매취할 때는 어느 정도 팔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매를 해왔는데 수매한 것이 많이 이월 될 것으로 생각되어 올해부터 수매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밤꿀 또한 600여 드림이 들어와 예년에 몇 십 드림 정도 들어오던 상황에서 10년 정도 팔 물량이 들어온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전부 매 취해주길 바라겠지만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알면서 전부 매취를 해준다는 것 또한 경영자로서 할 일이 아닌 상황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잡화꿀이 잘 나리 라고는 보지 않지만 아까시나무가 황화현상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고 혹 벌레 피해도 많이 감소하여 내년도에는 이상기후가 오지 않는 이상 올해 잡화꿀 생산된 량 이상으로 아까시 꿀이 생산되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몇 십년 만에 처음 생산된 잡화꿀 량 가지고 떠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육군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양관리 기술 또한 계속 향상되고 있어 경기부진 등 벌꿀 판매시장은 위축되는 상황에서 사양꿀을 몰아내지 않고는 순수한 꿀이 앞으로 계속 남아 둘 상황이다보니 전 양봉업체가 다 같이 침몰하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올해 잡화꿀이나 아까시아꿀이 많이 이월될 상황인데 많지 않을 물량일 때는 모르지만 많은 량이 이월되면 내년도에 수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꿀 가격 하락이 상당히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사양꿀을 생산하지 말라고 하고 팔지 말라고 하면 반발하는 양봉인과 상인들이 있는데 그동안 사양꿀 생산하여 잘 팔아먹은 고마움은 어디가고 자기의 잘못된 관행을 지키겠다고 고집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은 내년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

쳐오는 것을 수수방관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 고서야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느 것이 득이고 어느 것이 손해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관세는 점점 낮아져 가격이 싼 외국 꿀이 물 밀 듯이 들어 올 상황에서 사양꿀 가지고 버티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봉업계를 하루 빨리 떠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양봉업계를 위해서나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상황에서 지금도 사양꿀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양봉인으로서의 낙제생이고 혼자만 살아가겠다는 욕심이 목구멍까지 꽉 찬 사람이 아니겠는가.

사양꿀이 올해 많이 생산되어 순수한 꿀이 많이 이월된다면 사양꿀을 생산한 본인도 좋은 꿀을 전혀 생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리라 생각된다.

이제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상황인식을 못한다면 이단이 되리라 생각된다. 주위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설득시키고 안 되면 강력하게 제재해서 여러분들이 소득을 지켜 주길 부탁드리는 바이다.

사양꿀도 생산하는 사람 일부만 생산하니까 그나마 잘 팔고 있는 것이지 전 양봉인이 별통수에 비하여 많이 생산하는 비율도 동등하게 다 떴다고 가정할 때 사양꿀 팔 곳이 있겠는가 생각해볼길 바란다. 이제 대다수 선량한 양봉인들이 들고 일어 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사양꿀 생산 많이 하는 사람 50 ~ 100명만 양봉업계에서 사양꿀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몰아내면 상당히 정화되리라 생각되고 그렇게 할 때 대다수 양봉인의 소득도 지켜질 것이고 국민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양봉업체가 되리라 생각된다.